

## 최고의 개발자가 재해위험경감의 사례를 만든다



Hans Sy 는 “우리는 대재위험을 다루는 상품들로 시장가치를 창출하여 사업기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닐라, 2014년 6월 16일 -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부동산 개발업자들 중 대표 한명이 재해위험경감을 다루는 제품과 서비스의 신시장 기회를 위해 기업들을 찾아 갔다.

SM Prime의 회장인 Hans Sy 씨는 60개의 필리핀 사기업들의 포럼에서 공공과 사적 모두 도움이 되는 협력관계 구축이 사업에 효과적이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비능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Sy 회장은 이어 “우리는 재난 발생시 기본사업 연속성계획을 넘어서는 것을 사업가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며, 재해위험과 재해 복구의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다루는 상품시장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해위험경감 비즈니스 사례 마닐라 포럼에서 밝혔다.

또한 “재해의 영향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사업가들에게도 걱정거리가 되가고 있는 현실이다. 재해의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고통 받고 있다.”며 재해경감을 위한 정부와 민간사업가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마닐라만 간척지 위에 세워진 아시아북합단지 내 SM Mall에서 개최되었다. SM Mall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강한 대책 관련 총 프로젝트 예산의 30퍼센트까지 측정했다. 이 곳은 2006년 이후로 50개 태풍의 직접영향권이었으며 네 번의 지진과 우기로 인한 두 번의 홍수를 이겨냈다.

UNISDR(UN 재해경감기구)의 민간부문 고문 그룹 소속이기도 한 Sy 회장은 “2013년에 필리핀에 있었던 두 번의 큰 재해(태풍 하이옌과 Bohol 지진) 이후, 고난과 ‘좋은 기회’가 동시에 드러났다. 이제 우리는 거시적인 접근방법으로 재해 도움과 완화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민간 부문인 우리는 본연 사업뿐만 아니라 파트너, 사원들, 지역사회들에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민간부문의 재해경감분야의 관심을 촉구했다.

민방위 소속 필리핀 재해위험경감관리 위원회의 상임이사인 Alexander Pama 차장은 Sy 회장의 사업가와 정부 사이의 협력강화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며 “재해위험경감의 필수요소”라며 강조했다.

Pama 차장은 “인재와 자연재해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과 연락을 통해 전략 수립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은 이제 곧 고비를 넘길 것을 확신 하며, 우리지역, 우리 사람들, 우리나라 전체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원장인 Renato Solidum 씨는 강화된 재해위험관리의 가치를 사업가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간단한 역사이야기를 언급했다. 1571년에 지어진 마닐라성당의 사례를 들어 1600년, 1645년, 1863년, 총 세차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로 들었다.

Solidum 씨는 1968년, 강도 7.3 규모와 수도 북동쪽 220km 떨어진 곳에서 시작한 지진으로 마닐라 내 6층의 Ruby Tower 건물이 붕괴되어 268명이 사망하고 260명이 부상당했던 카사구란 지진 참사를 언급하며 과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해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는 에너지, 공익사업, 소매, 건축 산업분야에서 지역 사업부터 다국적 사업까지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SM Prime이 개최하였고 국제복구플랫폼의 도움을 받아 인천에 있는 UNISDR 국제교육훈련센터(GETI)가 진행하였다.

Andy McElroy

**날짜:** 2014 6월 16일

**출처:**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Pacific (UNISDR AP)

UNISDR Office for Northeast Asia and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t Incheon (UNISDR ONEA-GETI)

**관련링크**

[UNISDR DRR Private Sector Partnership](#)  
[Final report of the forum](#)

**키워드**

**주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협력관계, 재해위험관리

**국가:** 필리핀

**지역:** 아시아